

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안

의안 번호	40
----------	----

발 의 연 월 일: 2009. 10. 20.

발 의 자: 이창도 의원 외 9명

1. 제안이유

- 요즘 벼 수확기를 맞이하여 우리 농촌현장에서는 생산비도 보장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풍년농사의 기쁨보다는 쌀값 폭락으로 벼를 수확하지 않고 트랙터로 갈아엎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- 올해 쌀 예상수확량이 468만 톤으로 대풍인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가격은 가마당(40kg) 1만 원 이상 폭락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폭락할 것으로 예상됨.
- 그 대신 비료, 농약 등 농자재 값은 20% 인상되어 농민들의 부채상환은커녕, 자녀교육비와 내년 영농비도 마련할 수 없어 농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함.
- 이 같은 농촌·농민의 참담한 현실마저 외면한 채 정부에서는 쌀 수급대책회의와 수급동향만 파악하고 있을 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.
-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리는 등 쌀값안정과 농업생산비 보장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금 우리 농촌은 쌀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확기 쌀 가격형성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음.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,
- 농가요구 수매량 전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물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보장함은 물론, 산물 벼 매입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쌀 생산 농가 보호대책을 강구하고,
- 쌀 수급안정을 위해 농지의 휴경 또는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은 막고,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차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전 제도를 도입하며,
-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, 쌀값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저가미 판매 및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,
-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, 쌀 조기 관세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.

3. 건의안: 별 첨

- 4. 건의처: 농림수산식품부, 경상남도, 각 정당(한나라당, 민주당, 민주노동당, 진보신당 등)

공공비축미 수매확대 및 쌀값 안정대책 건의안

요즘 우리 농촌의 현실은 벼 수확기 황금들녘을 보면서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하나 농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합니다.

벼 40kg 한 가마 가격은 작년대비 1만 원 가량 하락한 반면,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 등 영농비는 20% 이상 증가해 농사를 지어봐야 손에 남는 게 없어 한 숨이 절로 나오고

쌀값 하락에 항의해 1년 동안 자식처럼 키워온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?

농민과 농업의 풍년 속 빈곤은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해마다 되풀이될 것입니다. 쌀 생산은 평년작이지만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 들고, 쌀 시장 해외 개방으로 인해 해마다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다보니 재고량이 누적되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쌀값 하락은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

정부에서는 쌀 수급안정 대책회의와 쌀 수급동향만 파악하고 있을 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. 농업은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생명 산업으로서, 농업을 살리는 길은 기업농 육성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보호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.

이에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농민이 요구하는 수매량 전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수매를 확대하고 조속한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7만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.

1. 지금 우리 농촌은 쌀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확기 쌀 가격형성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므로,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라.
1. 농가요구 수매량 전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물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보장함은 물론, 산물 벼 매입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쌀 생산 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하라.
1. 쌀 수급안정을 위해 농지의 휴경 또는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은 막고,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차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전 제도를 도입하라.
1.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, 쌀값 하락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대형 마트의 저가미 판매 및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.
1.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, 쌀 조기 관세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.

2009. 10. 28.

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